

“통합 찬반 당대표 재신임” 안철수, 통합론 ‘승부수’

“찬성의사 확인되면 신속 통합...반대시 사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볼겠다”며 바른정당 통합론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특히 “당원의 뜻이 통합 반대로 확인될 경우 그 또한 친권의 무게로 받아들여 당대표직을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는 당내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저는 결연한 각오로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당무위를 소집하며 ‘속진속결’ 의지를 확실히 했다.

안 대표는 “통합에 대한 당원 여

러분의 찬성 의사가 확인되면 저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신속한 통합 작업 후 저는 새로운 당의 성공과 새로운 인물 수혈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바른정당 통합 후 2선 후퇴 의지도 밝혔다.

그는 또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와 폭넓은 당원 대상 조사도 통합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수치로 반영하고 있었다. 호남의 여론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이렇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시간에 안타깝게도 일부 중진 의원은 근거를 알 수 없는 호남 여론을 앞세워 통합 반대 대표 재신임을 요구했다”고 발언. 통합 반대파를 이끌고 있는 박지원·전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을 직격했다.

안 대표는 특히 “전당원투표로 확인되는 당심은 구성원 누구도 거



부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전당원투표에 승복하지 않으려면 당을 나가라는 의미다.

그는 “국민의당은 호남의 지지로 우뚝 선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민주회의 출발점인 호남 정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며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호남의 민주주의 전통을 왜곡하고 김대중 정신을 호도하는 구태정치, 기독교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호남정치 회복이라 믿는다”고 했다.

安, 통합논의 의총 불참...“끌고라도 와” 항의빗발

“어디서 배운 정치인가...무시도 유분수” 반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안철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당내 항의가 빚발쳤다.

국민의당은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초에는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 중재파의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 대표가 이날 오전 자신의 대표직을 걸고 전 당원을 상대로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당내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총회를 소집해놓고 기자회견 하는 사람이 어디있다. 있을 수 없는 일”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안 대표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을 향해 “안 대표 빨리 참석하라 해라.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지”며 “뭐가 무서워서 참석 못하냐. 어디서 배운 정치인가. 의원들에 대한 무시도 유분수”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할 말이 없는거지”, 김경진 의원은 “총회에 나와 설명조차 못한다면 자격이 없다. 대표를 사임하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해명하든지 뚜렷하게 얘기해달라”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안 대표 불참에 대해 “끌고라도 와야지 이런 비겁한 경우가 어디있다” “꼭바로 해”라고 소리쳤다.

이에 송 의원은 “말씀을 가려달라”고 대응했고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나”라고 말해 긴장감을 자아냈다.

김성태 “文정권 언론 탄압, 군사정권 때도 없던 일”

“기획 감사 모자라 야당측 인사 찍어내는 작태 중단”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한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호성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제가 시민사회·노동운동을 30년 가까이 했지만 지금과 같은

인민재판식 언론 탄압은 군사정권 때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과천시 방

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이호성 방통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언론 장악을 위해 하나의 차질도 없이 의도한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심지어 (KBS 이사들이) 업무추진비 350만원을 쓴 걸 갖고 감사를 두 번이나 하고 방통위가 징계를 하고 있다”며 “기획 감사도 모자라 방통위가 야당 측 인사를 찍어내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오늘 검은 넥타이를 매고 방통위를 방문한 건 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알려달라는 뜻”이라며 “심각한 정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양상까지 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한국당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강경화 “임종석 UAE 방문, 외교부 모르는 부분 있을 수도”

“특사 방문 보좌...방문목적 靑설명 외 드릴 말씀 없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관련해 “그 목적에 대해 외교부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가 임 실장의 특사 방문 목적

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다는 건가’라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부는 임 실장의 특사 방문을 보좌해드렸다”며 “방문 목적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한

설명 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임 실장과 UAE 왕세자 간 면담 결과 내용 전문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물음에 대해서는 “전문은 공개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외교부가 밝힐 수 없고 임 실장이 직접 밝히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뉴시스

이정미 “靑, 임종석 UAE 방문 속시원하게 보고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의혹과 관련해 “방문 보고를 조금 더 국민한테 속시원하게 한 번 얘기를 해주는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들의 세아침’에 출연해 “국내에서는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 특사를 보낸다 라든가, 이렇게 각 당 대표에게 브리핑을 하는 과정을 밟을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임 비서실장의 특사 파견에 대해 당초 장병 격려 차 방문이라고 했다가 UAE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을 비공개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에 그쪽 국가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다면 왜 그것이 비공개인지, 그것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정치적 공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전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민주당의 동의없이 운영위를 소집한데 대해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최대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그런 입장

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MB 자원외교에 대한 여러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UAE 방문과 관련해서도 MB 뒤를 쫓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뭔가 뭐가 구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공격으로 방어하겠다는 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한국당 내부에 당무감사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이 광장히 극심한 상황에서 이것을 외부적인 문제로 끌고 갈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전략적인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